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7.25(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23(토) 17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7. 23 (토)	담당부서	지역산업과
담당과장	단희수 과장(044-203-4420)	담 당 자	김재은 서기관(044-203-4421) 황승완 사무관(044-203-4422)

주형환 산업부장관, 거제 조선소 현장 방문

-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조선산업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7.23(토) 대표적인 **조선업 밀집지역인 거제**를 방문했다.

○ 주장관은 조선 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조선기자재 업체, 사내협력사, 중기청, 거제시, 지역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5대 조선 밀집지역*의 매출·수출·고용 지표들이 악화**되고 지역상권도 위축되고 있어, **조선산업의 연착륙과 조선 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했다.

* 5대 조선밀집지역 :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 '16.1~5월 전년 동기대비 수출 감소율 : 5대 지역 18.4%% vs 전국평균 8.2%

□ 이 자리에서 산업계와 지역상의는 조선업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 특히 자금난 해소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보증·선박펀드 등 **금융지원 요청**이 많았으며, 추경편성이나 세제혜택 등도 건의했다.

○ 기자재 업체·사내협력사 등 중소업체들은 **공공부문 발주확대**와 같은 **일감부족 해소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 한편 주형환 장관은 조선산업 생태계를 단기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① 조선산업 연착륙 유도 : 조선산업 자체)**

○ 대형조선사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 핵심분야** (예: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선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활력제고법**(8월부터 시행)을 통해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

○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관공선 조기발주·선박펀드 활성화를 통한 수요창출, 국제 환경규제 대응, 선박 수리·개조 시장 진출 등

□ 또한 추경안을 중심으로 조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최근의 정부 지원 노력**을 설명하고, (총 9,400억 원 투입)

* 추경안 편성 2,400억 원 (조선 퇴직인력 재취업교육, 고용안정지원, 조선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등)
* 관공선, 군함 등 총 61척 선박 신규발주 등 조선업 일감 마련 1,000억원
*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기청 정책자금 증액편성 6,000억원

○ 업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조선산업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으로 조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조선기자재업계의 건전한 발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② 조선산업 연착륙 유도 : 조선기자재업계)**

○ 정부는 지역별 **"기자재업체 현장애로 지원단"**을 통하여 1:1로 전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 전기전장, 의장, 기관, 선체 등 **4개 분야별** 맞춤형 수요 창출, 연구개발(R&D), 금융 등 집중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 주 장관은 지역별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먹거리인 新산업**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③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 지역별로 민관합동 신산업 추진반을 구성해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 및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또한 ① 조선산업 연착륙 ② 조선기자재업계 연착륙 ③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 장관은 조선 산업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계·노조·중앙정부·지자체 등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장관이 직접 **5개 지역 단체장들과 소통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진 제도·재정·연구개발(R&D) 등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산업조정촉진지역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수단을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가칭)산업조정촉진지역제도는 급격한 산업 여건의 변동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의 각종 지원 수단들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연계하여 단기 위기극복 방안과 중장기 대체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려는 취지다.

○ 특히 조선업을 포함한 주력산업들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파업은 공정차질, 인도지연 등의 손실을 초래하고 자구노력 이행에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노조의 책임있는 자세와 신중한 행동을 당부했다.

□ 간담회 이후 주 장관은 **"삼성중공업"** 조선소와 조선기자재업체인 **"건화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김재은 서기관(☎ 044-203-4421), 황승완 사무관(☎ 044-203-4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간담회 개요

□ **목　　적** : 조선산업·지역경제 관련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일　　시** : 16. 7. 23(토) 13:30 ~ 14:30

□ **장　　소** : 거제시청 중회의실

□ **참석 대상 (18명)**

○ 정　　부

- 산업부 : 장관, 산업기반실장, 지역국장, 시스템국장
- 중기청 : 차장

○ 지자체 / 기관

- 거제시장
- 거제상의회장
- 경남테크노파크원장

○ 기　　업

- 조선 3사(현대, 삼성, 대우)
- 조선기자재업체 5
- 사내협력사 2

참고2 간담회 참석자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주형환	
			산업기반실장	도경환	
			지역경제정책관	박기영	
			시스템산업정책관	김영삼	
		중소기업청	차 장	최수규	
지자체		거제시	시 장	권민호	
기관		거제상공회의소	회 장	원경희	
		경남TP	원 장	이태성	
기업	조선사	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	박대영	
		대우조선해양(주)	대표이사	정성립	
		현대중공업(주)	부회장	최길선	
	기자재	(주)신성	대표이사	이성신	
		(주)칸정공	대표이사	박기태	
		(주)건화	대표이사	황갑기	
		(주)해원	대표이사	신해균	
		(주)삼녹	대표이사	이헌국	
	협력업체	선강기업	대표이사	김종찬	
		영화기업	대표이사	이정섭	